

한국교회지도자의 밤 축하 메시지

‘한국교회지도자의 밤’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 오신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19년 전 처음 이 땅에 들어온 한국 교회는 깨어 있는 정신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독립운동과 계몽교육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끌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목사님들과 시민운동을 함께 하면서 사회문제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는 용기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와 축복을 느낍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 여러분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역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큼니다. 앞장서 주셔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국민화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열과 불신의 골이 좀처럼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를 용납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 나가려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야겠습니다.

건강한 정신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범죄는 더 난폭해지고 윤리의식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삶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정신적 공허와 빈곤을 극복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을 심어 가야겠습니다.

교회 지도자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더 많이 귀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지도자의 밤 행사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